

# 지역대학 위기의 현실과 해결 방안 모색

일 시\_ 2021. 6. 4 (금) 오후 2:00~5:00

장 소\_ 고려대학교 아산이학관 330호

온라인\_ [http://new.kcsnet.or.kr/live\\_basicscience](http://new.kcsnet.or.kr/live_basicscience)

주 최\_ 기초과학학회협의체(기과협),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 발표자와 토론자를 제외한 일반 참가자는 온라인 참가만 가능합니다.



## 포럼을 시작하며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학생 수 감소와 코로나19로 심화된 재정난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1970년대 초반에 비해 2000년대에 이미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출생아 수가 더욱 줄어들어 내년에는 1/4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몇 년 전부터 일부 대학의 신입생 수가 부족한 상황이 본격화되었고, 지역대학들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지역대학들 중에는 대규모의 신입생 미달 사태가 발생하여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는 대학의 신입생 자원이 7만여 명 정도 부족하지만 3년 뒤에는 부족한 신입생 자원이 11만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신입생 부족 사태는 더 이상 지역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대학들이 향후 수년 이내에 학생 부족 사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부생 뿐 아니라 대학원 신입생 미달 문제도 심각합니다. 대학원생 수의 감소는 곧 연구 수행 인력의 부족을 의미하므로, 과학기술에 미래를 걸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많은 대학들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변화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정원 감축이나 학과 통폐합과 같은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학회협의체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는 시대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기초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지역대학 위기의 현실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학교육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포럼 일정

| 프로그램  | 시간          |
|---|-------------|
| <b>개회 및 환영사, 축사</b><br>환영사: 정옥상(부산대학교 화학과, 대한화학회 회장, 기과협 회장)<br>축 사: 이우일(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 14:00~14:20 |
| <b>주제 발표</b><br>THEME 1 지역대학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환경<br>흥기민(충남대학교 물리학과)<br>THEME 2 지역대학의 위기와 묻지마 유학생 유치, 약인가? 독인가?<br>이동현(전북대학교 화학과)<br>THEME 3 지역대학 위기의 진실과 지학협력의 미래<br>양진오(대구대학교 한국어문학부) | 14:20~15:20 |
| 휴식  | 15:20~15:35 |
| <b>지정 토론</b><br>박진해(충남대학교 수학과), 조성래(울산대학교 물리학과),<br>황의욱(경북대학교 생물교육과), 정은희(강릉원주대 화학신소재학과)  | 15:35~16:35 |
| 종합 토론   | 16:35~16:55 |
| 폐회사   | 16:55~17:00 |

e-포럼 참가하기